

중국 내수 테마, 미디어/엔터, 가즈아!!!

[Quant/Strategy] 이상민

02-6099-8665

smlee@barofn.com

Chart

Impact

중국 내수 테마 지수 Vs. 미디어/엔터 지수 Vs. KOSPI 200

(2017.1. = 100)

— 중국내수테마 — 코스피200 — 미디어/엔터



- 그동안 위축되었던 미디어/엔터 및 중국내수테마가 전년도 9월을 저점으로 하여 상승랠리를 펼치고 있음
- 해당 업종들의 2018년 영업이익 성장률(YoY)는 다음과 같음. 중국내수테마 +26.8%, 미디어/엔터 +38.1%
- 기간 한한령, 사드 이슈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종목들은 오랜기간 시장 수익률을 하회 해 왔음
- 그러나 올해는 JYP, SM, 코스맥스 등을 필두로 하여 랠리를 보이고 있음
-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와 달리,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

자료 : Fnguide, Baro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. 또한 당사의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복사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 센터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